No. 12 기초 개념 읽는 시간 4분

PBR이 1배보다 낮으면 정말 싼 주식일까?

PBR 1배 미만은 장부상 자산보다 싸게 거래된다는 뜻이지만 싸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가상의 회사로 장부가치,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자산 감소가 PBR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봅니다.

한 줄 결론

PBR이 낮다는 것은 장부 숫자 대비 가격이 낮다는 뜻일 뿐, 그 장부가 믿을 만하고 이익을 내는지 함께 봐야 함

확인할 숫자

PBR, 주당순자산(BPS), 자기자본이익률(ROE), 자산의 실제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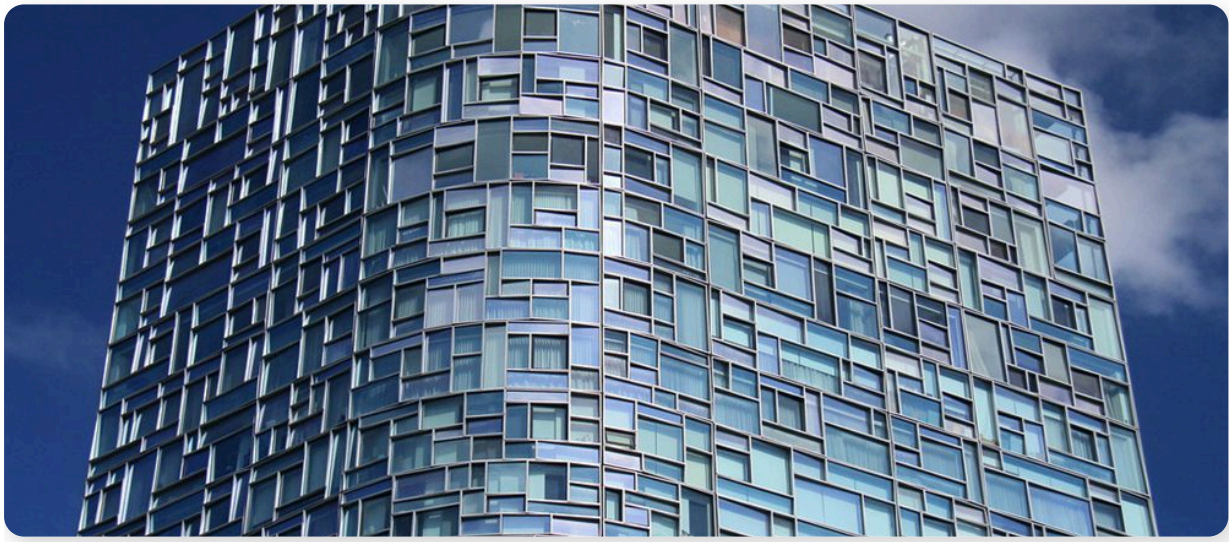


사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유리 외벽 고층 건물, o palsson, Flickr.

목차

1. PBR 0.6배는 무엇을 알려 줄까?
2. 장부의 자산은 정말 그 값에 팔릴까?
3. 같은 PBR 0.6배인데 왜 다른 회사일까?
4. 손실이 이어지면 PBR은 어떻게 변할까?
5. PBR이 낮은 종목을 볼 때 던질 다섯 가지 질문

> 이 글의 회사와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나 주가 예측이 아닙니다.

종목 정보 화면에서 PBR 0.6배라는 숫자를 보고 장부상 자산보다 싸게 파는 주식이라며 눈이 커진 적, 있을 겁니다. 1배가 안 되면 일단 싸다고 배운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PBR이 1배보다 낮은 주식은 정말 싼 걸까요? 가상의 숫자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01

PBR 0.6배는 무엇을 알려 줄까?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자산(BPS)으로 나눈 값입니다. 순자산은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빚을 뺀 장부상 금액이고, 이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1주가 가진 몫이 됩니다.

가상의 회사 R의 순자산이 1,000억 원이고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라면 주당순자산은 10,000원입니다. 주가가 6,000원이면 PBR은 6,000원 ÷ 10,000원, 즉 0.6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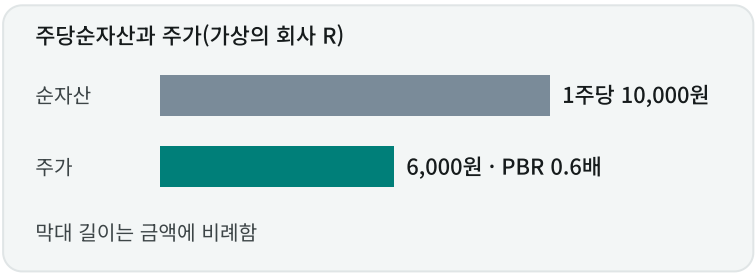


그림 1. 가상 예시. PBR 0.6배는 장부상 순자산의 60% 값에 거래된다는 뜻임.

이처럼 PBR은 장부 숫자와 가격을 견주는 비율입니다. 장부 숫자가 맞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02

장부의 자산은 정말 그 값에 팔릴까?

순자산 1,000억 원 가운데 일부가 팔리지 않는 재고나 낡은 설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부에는 취득 당시 값이 남아 있어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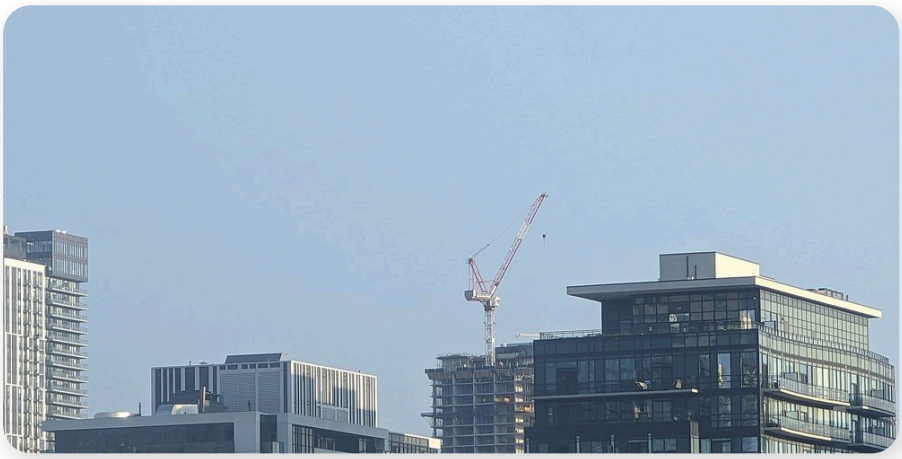


사진: 고층 건물 사이에서 올라가는 타워크레인, Geo Swan, Wikimedia Commons.

회사 R의 자산 가운데 400억 원어치가 실제로는 가치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의미 있는 순자산은 600억 원, 1주당 6,000원입니다. 주가 6,000원은 실제 가치와 같은 값이므로 PBR 1배가 되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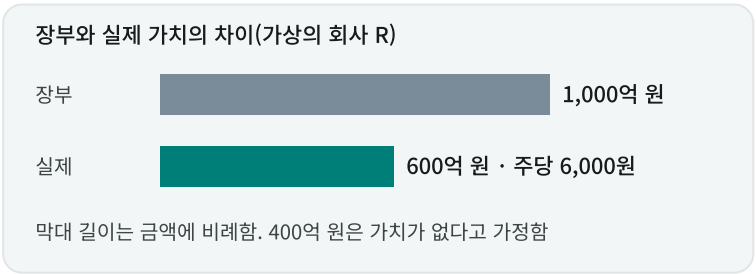


그림 2. 가상 예시. 장부 대비 0.6배로 보이던 가격이 실제 가치로는 1배가 됨.

싸 보이던 가격이 사실은 제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을 때는 자산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3

같은 PBR 0.6배인데 왜 다른 회사일까?

이번에는 장부가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PBR이 똑같은 두 회사를 비교하겠습니다. 가상의 회사 S와 T는 순자산이 1,000억 원, 시가총액이 600억 원으로 PBR이 모두 0.6배입니다. 다른 점은 1년에 버는 순이익입니다.

S는 순이익이 20억 원이고 T는 150억 원입니다.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을 ROE(자기자본이익률)라고 하는데, S는 2%, T는 15%입니다.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PER도 S는 30배, T는 4배로 크게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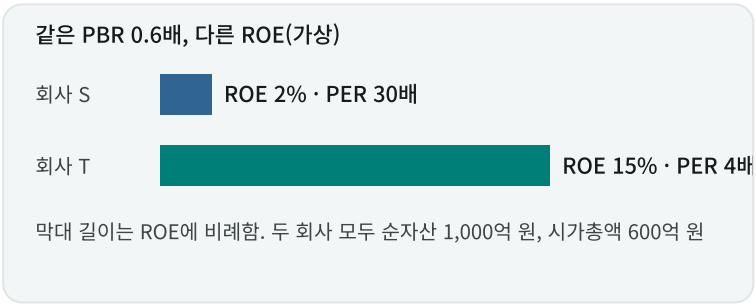


그림 3. 가상 예시. PBR이 같아도 순자산으로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가격의 의미가 달라짐.

S는 장부에 자산이 있어도 거기서 거의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낮은 값을 매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T처럼 같은 자산에서 훨씬 많이 번다면 같은 PBR이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04

손실이 이어지면 PBR은 어떻게 변할까?

순자산은 한번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회사가 손실을 내면 순자산이 줄어듭니다.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PBR 숫자는 움직입니다.



사진: 컨테이너선과 항만 크레인, Bernard Spragg, Flickr.

회사 R이 3년 동안 해마다 100억 원씩 손실을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순자산은 1,0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줄어 주당순자산이 7,000원이 됩니다. 주가가 6,000원 그대로라면 PBR은 6,000원 ÷ 7,000원, 약 0.86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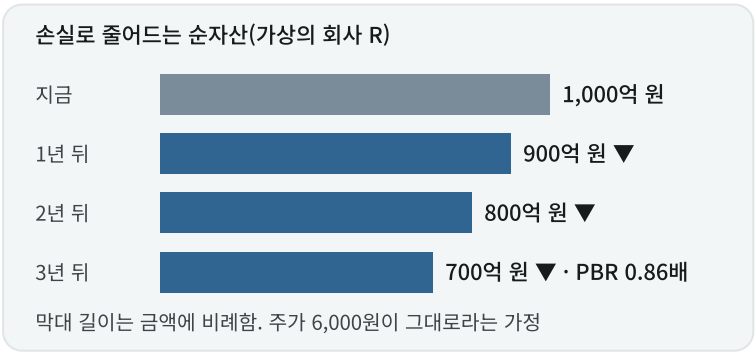


그림 4. 가상 예시. 주가가 변하지 않아도 순자산이 줄면 PBR 숫자는 올라감.

0.6배에서 0.86배로 올랐을 뿐 주가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낮은 PBR이 나중에 낮은 채로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05

PBR이 낮은 종목을 볼 때 던질 다섯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PBR 1배 미만이라는 숫자가 눈에 띌 때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PBR이 낮으면 싸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 아닙니다. 장부 숫자 대비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 알려 줍니다.

2. **"장부의 자산이 그 값에 팔리는가?"**
   → 재고·설비의 실제 가치가 낮으면 싸 보이던 가격이 제값일 수 있습니다.

3. **"그 자산으로 얼마를 버는가?"**
   → ROE가 2%인 회사와 15%인 회사는 같은 PBR이어도 의미가 다릅니다.

4. **"순자산이 줄고 있지는 않은가?"**
   → 손실이 이어지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PBR 숫자는 올라갑니다.

5. **"PBR만 보고 판단해도 되는가?"**
   → PER, ROE와 함께 보면 숫자가 서로를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PBR이 1배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의 PBR, ROE, 최근 3년 순자산 변화를 나란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글에 쓴 회사 R·S·T와 모든 숫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업 자료가 아님
- 실제 순자산·ROE·PB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 또는 증권사 앱의 종목 정보 [확인 필요: 기준 시점]
- PBR·ROE 정의: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의 지표 설명 [확인 필요]

분류·태그 기초 개념 #PBR #기초지표 #밸류에이션 #주가 해석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5-auto-1100.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